

經濟史는 어떠한 學問인가?⁽¹⁾

金 宗 炫

경제사는 역사학의 한 분야이면서도 특히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사의 인식에는 경제이론의 제개념과 방법이 이용된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경제사의 문제의식과 연구대상, 그리고 이론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면서 전개되었다. 역사학과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에 있어서는 역사와 이론은 통합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사회의 총체적 인식을 지향한 사회경제사는 경제이론과는 부분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고전학과 경제학에서와는 달리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이론과 역사는 분리되었다. 양자가 접근 내지 결합하게 된 것은 제2차 대전 이후의 일이었다. 그 속에서 전개된 '新經濟史'는 오늘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경제사와 전통경제사와의 관계는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서구(영국)모델을 기준으로 인식되어 온 경제발전의 일반적 역사모델은 비서구모델까지도 수용하여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비교사적 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대한 고별강연의 장을 마련해주신 鄭雲燦 학부장을 비롯한 경제학부 교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수, 학생 여러분께 감사한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나로서는 30여년 동안 재직하던 대학을 떠나게 되니 매우 감회가 깊다. 내가 서울대학교에 재직한 기간은 사회적으로는 큰 격동기였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크게 발전하고 변화하였다. 그것은 서구사회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약 1세기 동안에 겪은 것과 맞먹을 만한 변화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대학만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는 없었다. 대학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발전을 하였다. 대학을 떠나게 되니 그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깊은 감회와 함께 회상된다.

경제학부에서는 정년퇴임교수가 관례적으로 고별강연을 해오고 있다. 나는 이러한 행사가 뜻깊은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관례화되어 계속되기를 바란다. 나에게 있어서 고별강연은 교수로서의 반평생을 살아온 대학을 떠나면서 그 동안의 자신의 연구를 되돌아 보

(1) 이 글은 1996년 10월 24일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있었던 필자의 정년퇴임 고별강연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나는 經濟史, 특히 西洋經濟史를 전공하며 근대 자본주의 내지 공업화의 전개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産業革命을 중심으로 比較史的인 연구를 해왔다. 본 대학교에는 개교 초기부터 경제사 과목이 설치되어 훌륭한 선배교수들이 그 과목을 담당해왔다. 한국에서의 경제사의 연구 및 교육은 이들 교수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뒤이은 우리 세대들은 직·간접적으로 이분들의 학문적 은덕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배교수들은 격동기의 학내외적 상황속에서 본 대학교에 오래 재직하여 정년을 맞이하지는 못하였다. 이제 경제사 연구자의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본 대학교에서 경제사 교수로서는 처음으로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서는 영예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나 자신에게 큰 책임이 주어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정년퇴임하는 시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였는가를 물을 때 나 자신 너무나 그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막상 고별강연을 하게 되니 무슨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의 강의와는 달리 교수로서 마지막으로 학생들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 긴장도 되고 한편 마음이 무겁기도 하였다. 결국 나 자신의 본령으로 돌아와 전공과 관계되는 문제를 골라 이야기 함으로써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經濟史는 어떠한 학문인가?’이다. 경제사는 어떠한 시대적 및 연구사적 배경에서 독립학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학문적 성격은 어떠한가? 경제사는 어떠한 문제의식과 연구 대상을 가지고 어떠한 분석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는가? 그리고 경제사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내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經濟史’는 경제학부에서는 많지 않은 필수과목의 하나로 중요한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경제사가 경제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의 이야기가 사회과학도, 특히 경제학도들에게 경제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학문적 위치를 생각하는 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다행한 일이다.

1

인간의 경제활동에 관한 역사서적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찍부터 있어왔다. 그들 史書들은 상업, 농업, 재정, 개혁, 규제 등 경제생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관한 역사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서는 정치라든가 사회적 측면에 관한 기술과 구별을 두지 않고 서술된 것들이었다. 경제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룬 사서들이 쓰여지는 것은 서양에서는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중상주의적 상업발전이 추구되는 속에서 상업·무역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서술한 사서들이 출판된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17세기 후반기에 화란의 상업 및 해운업에 관한 사서들이 출판되었다. 이들 저작물의 공통된 목적은 화란의 경제적 성쇠의 역사적 요인 즉, 생산력적 기반이 취약한 화란의 번영이라는 ‘逆피라미드 현상’ [Tawney(1933), Harte(1971, p. 91)]의 원인을 究明하는 데에 있었다.

경제사적 기술들은 특히 18세기와 19세기 전반기에 걸쳐서 많이 나타났다. 그것은 경제사의 여명으로 위치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는 상호 관련되는 세 가지 사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적 진보, 시민적 제3계급의 대두,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의 신봉이다. 18세기에서 19세기 전반기에 걸친 시기는 영국의 산업혁명 및 프랑스대혁명과 함께 서구사회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혁을 거친 시기이다. 경제적 진보 및 시민사회의 전개와 함께 부르주아가 성장하고 그들의 시민적 권리도 신장되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계급으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문제와 일반시민의 생활에 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편 계몽주의 사상은 진보의 관념을 낳고 경제현상을 인류에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인식하여 그 일반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역사는 왕조 또는 교회 중심에서 일반시민의 생활에 관한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시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연구로 관심이 이행하였다.

역사에 대한 큰 관심은 경제학으로부터 나왔다. 무엇보다도 아담 스미드(Adam Smith)의 『國富論』(1776년)은 풍부한 역사적 지식에 기초하여 서술된 것이었다. 스미드는 중상주의자들과 국가의 규제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自由主義 경제사상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역사지식을 광범하게 동원하였다. 클레팸에 의하면 “경제사상의 발전과정에서 『國富論』에서만큼 역사적 수완과 분석적 수완이 훌륭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은 없었다” [Clapham(1929, p. 17)]. 한편 맬더스(Thomas Malthus)의 『人口論』은 초판(1798년)의 경우는 역사적이라기보다는 교조적이었으나, 판이 5회나 거듭되면서 역사적 및 통계적 자료로 계속 보완되어 인구와 인구억제 활동에 대한 역사와 같은 것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동시대의 경제학자로서 리카도(David Ricardo)는 냉철하게 이론적 분석을 심화시키고 역사와 직접 관계를 갖지는 않았으나 장기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역사와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19세기 전반기의 영국에서는 산업혁명·공업화의 전개라는 배경에서 산업발전에 관한 저작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맥컬록(J.R. McCulloch)의 『商業史』(1831년)와 베인스(E. Baines)의 『綿工業史』(1835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토크(Thomas Tooke)의 『物價史』 전6권(1838-1856년)은 장기간에 걸쳐 물가의 움직임을 통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업적이었으며, 영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을 서술한 포터(George Richardson Porter)의 『國民의 進歩』(1836-1843년)는 근대경제사의 양적 분석의 기초를 낳은 노작이었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몰고 온 경제적 조건에 관한 방대한 저작들이 주로 역사가들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그러한 흐름속에서 토크빌(De Tockville)의 『舊體制와 大革命』(1855년)이라든가 프랑스정부가 발행을 책임진 『프랑스 革命의 經濟史에 관한 未刊行 文書集』 등이 출판되었다.

19세기 중엽의 독일에서는 경제학이 경제사 연구를 주도하였다. 독일의 경제학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一般理論을 추구한 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해서 국가적 特殊性을 강조하면서 國民經濟學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그 사상적 기반은 浪漫主義였다. 낭만주의에서는 주권의 자유가 중요시되고 민족 내지 국가의 특성이 강조되었다. 사회 경제적으로 후진 상태에 있던 독일에서 경제학이 지향한 목표는 경제발전 단계를 구명하여 그에 합당한 경제정책을 도출하는 데에 있었다. 그 경우 경제발전 단계를 구명하는 방법은 歷史的 方法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리스트(F. List)의 『政治經濟學의 國民的 體系』(1841년)를 시작으로 뢰셔(W.G.F. Roscher)의 『歷史的 方法에 의한 國家經濟學 講義 綱要』(1843년) 및 크니스(Karl Knies)의 『歷史的 立場에 의한 政治經濟學』(1853년) 등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이들 歷史學派의 경제학은 초기에는 이론, 역사, 정책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전개되었지만, 경제발전의 인식에서는 순수이론과는 다른 독자적인 체계와 범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경제사 성립의 학문적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였

다. 역사학과의 經濟發展 段階論은 후기에 이르러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현상을 인식하는 기준 내지 원리로 간주됨으로써 경제사의 방법으로 되었다.

'경제사'가 자신의 연구영역과 방법을 가지고 독립학문 분야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것은 19세기 말엽에 이르러서였다. 그라스(N.S.B. Gras)는 경제사가 1879년에서 1888년에 이르는 10년 동안에 '완전한 成年'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Gras(1927, p. 20)]. 1879년은 '經濟史'라는 제목의 책이 처음으로 출판된 해였다. 즉, 이 해에 이나마 스테르넵(Inama-Sterneg)은 독일 국민경제의 발달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 『獨逸經濟史』를 출판한 것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경제사 연구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과 영국 및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경제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대학 교과목의 하나로 설치되어 전임교수가 임명되는 등 제도적으로도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는 1883년에 '경제사' 강좌가 개설되고 1892년에는 영국의 경제사가 애슐리(Sir William Ashley)가 초대 경제사 교수로 취임하였다. 영국에서의 최초의 경제사 교수는 1910년에 맨체스터 대학에 부임한 언윈(George Unwin)이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클래팸(J.H. Clapham)이 최초의 경제사 교수로 취임한 것은 1928년에 이르러서였지만, '경제사' 강좌는 그에 훨씬 앞서 이미 개설되고 있었다.

경제사는 선행한 시기에 있어서의 다양한 경제사적 서술을 전제로 하여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에는 자신의 연구영역과 방법을 가진 독립학문으로서의 지위와 대학교과목으로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약 1세기 동안 두드러지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립, 발달한 경제사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학문인가? 경제사에 관한 한 모든 사람에게 수용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의라는 것은 없다. 경제사자들은 자신이 공헌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경제사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온 역사과정을 설명하는 학문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 경우 물질적 욕망의 내용은 원초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보다 편리한 것으로 고도화, 다양화되고 그와 함께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일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장비 내지 기술의 도움을 받으며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경제제도가 발달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사를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그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기술 및 사회 경제적 제제도, 그리고 인간의 노력의 결과에 관한 역사적 연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역사적 연구'라는 것은 경제제현상을 일정한 시간 속에서 설명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 속에서 변화하는 것으로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라스는 경제사를 '경제제현상을 시간적, 발생적 및 인과관계적 연속 속에서 연구하는 학문' [Gras(1927, p. 30)]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경제사는 일정한 時間的 및 空間的 차원에서 경제제현상이 발생하여 성장·발전하거나 쇠퇴하는 과정과 함께 그러한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原因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제사는 학문의 성격상 역사학과 경제학의 양분야에 걸친 학문이다. 경제사는 문화 현상으로서의 과거의 경제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역사학의 한 분야이며,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경제학의 문제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클래팜은 경제사를 "역사학과 경제학의 중간에 위치한다" [Clapham(1929, p. 7)]고 지적하고, 애슈톤은 '역사학과 경제학이라는 양대륙 중간에 있는 地峽' [Ashton(1946, p. 83)]으로 비유하였다. 애슈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지협'은 양대륙 중의 어느 한쪽이 유력해지면 그에 큰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는 지배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결코 좁지 않은 넓은 영역이다. 즉, 경제사라는 '지협'은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확립된 영역으로, 양대륙의 영향을 받지만 독자적인 발전을 하면서 양대륙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경제과정의 역사발전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인 만큼 이 분야의 연구는 一般史 인식의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경제사를 통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의 경제이론이 현실성, 구체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도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경제사가 경제학의 한 분야라는 것이다. 경제학이 현재라는 시간적 차원에서의 경제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서 경제사는 역사적 차원에서 그것을 다룬다. 경제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제 제현상의 원리를 구명하고 그것으로 현실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경제발전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과학인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사는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경제학의 인식능력을 크게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과학이다. 경제사는 경제학이론을 역사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인식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사 인식에는 이론에서 정립된 제개념과 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사는 이론이 정립한 추상적 제개념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논증하고 이론의 현실적 진리성을 검증할 수 있다. 즉, 경제사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방대한 경험적 증거를 경제학자에게 제공하고 경제학자의 제개념

의 源泉이 되고 제가설의 검증기반이 될 수 있다”(Aitken(1960, p. 92)).

경제사가가 과거의 경제과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인식의 근거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서의 史料이다. 역사는 기록된 사료를 가지고 구성되는 것이다. 오늘날 新經濟史가 ‘反사실적 가설’ 하에 고도의 수학적, 계량적 방법을 통해 자료를 가공하여 역사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기록으로서의 사료에 의거하여 구성된다는 기본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료 수집이야말로 역사의 연구과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사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사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쉽게 이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이 발견되어야 한다. 역사인식을 위한 노력의 첫걸음으로써 사료 수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료가 아무리 수집된다 해도 그것이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사가 과거의 경제현상을 다룬다 하더라도 사료를 가지고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사료의 단순한 수집은 尙古家의 취미 이상의 것은 아니며, 그것을 소재로 서술적인 이야기라든가 소설, 희곡을 쓴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움과 위락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를 쓰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이 말하는 ‘즐겁다는 것’은 역사연구의 하나의 동기가 될 수는 있을런지 모르나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카(E.H. Carr)는 역사를 ‘과거와의 對話’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역사의 기능을 “과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과거를 정복하고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Carr(1961, pp. 20, 24)]. 이 말은 카에 있어서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인식하는 사회과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경우 과거와의 대화의 상대는 사료가 될 것이다. 사료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므로 그 자체가 일정한 사실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료를 그대로 늘어놓고 연결하여도 그 자체가 역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포스탄은 “경제사는 사실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게 되는 곳에서 끝난다. 그리고 그 질문이 사회 제문제에 근접하면 할수록, 그리고 문제들이 사실조사를 완전하게 지배하면 할수록, 그 연구는 사회과학에서의 역사의 참된 기능에 근접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다(Postan(1939, p. 14)). 사료와 대화하고 사료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문제의식을 가진 역사가인 것이다.

경제사가의 '과거와의 대화'는 수집된 사료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제사가는 자신의 관심 내지 문제의식에 따라 사료를 정리하고 일정한 기준 내지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설명한다. 여기에 史觀과 방법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관 내지 방법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일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떠한 사관 내지 방법을 취하느냐라는 문제는 결국에는 경제사가의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다. 경제사가 과거라는, 시간적 차원을 달리하면서도 경제과정 내지 경제현상으로서 공통된 대상을 다루는 학문인 만큼 그 방법으로서 경제이론의 재개념과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만약에 유용한 이론이 없을 경우에는 경제사가는 나름대로의 유용하고 의미있는 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사실 경제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의 성격에 따라 경제학과 결합된 형태로, 혹은 분리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경제학의 방법을 이용하면서 연구되어 왔다.

경제사가는 특정한 개별적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종합하여 일반화를 지향한다. 경제사가의 일반화는 직관적 통찰 또는 논리적 추론에 의존하는 이론가의 演譯的 방법과는 달리 경험적 자료와 사건 등 많은 事例 분석을 통하여 歸納的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통하여 경제사가는 자신의 일반화가 이론적인 일반화와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편 이론가는 이론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역사와 이론은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사가 대상으로 하는 경제과정 내지 경제현상은 순수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및 문화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제사는 넓은 시야를 가진 학문이며, 경제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경제학만이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등 여타의 사회과학이론이 이용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해서 경제사는 學際的(interdisciplinary) 성격을 가진 학문인 것이다.

경제사는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는 시각과 다루는 문제 내지 문는 내용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면서 새로 쓰여져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일한 문제를 다루어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먼 과거의 문제도 현재의 문제와 연관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역사는 現代史이다' (B. Croce)라는 역설에 진리가 있다. 경제사의 학문적 성격은 경제사가 어떻게 쓰여져 왔는가를 고찰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경제사가 문제의식과 연구대상 및 방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쓰여 왔는가를 고찰하기로 하자.

2

경제사의 연구는 원래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즉, 歷史學派의 經濟發展 段階論, 마르크스주의 사학, 實證主義的 社會經濟史學이다. 물론 이들 세 가지 흐름에서도 역사학과의 발전단계론과 같이 20세기에 들어 경제사 방법론으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하여 연구사적 의의를 가짐에 불과하게 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현대경제이론과 수량적 방법을 이용한 新經濟史가 대두하여 발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사의 성립 초기부터의 발전경로는 위의 세 가지이며 新經濟史는 제2차대전 후에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경제사가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을 달리하면서 전개된 것이다. 新經濟史에 대해서는 뒤에서 고찰하기로 하고 우선 傳統經濟史의 전개과정을 보기로 하자.

독일 歷史學派의 경제학은 영국의 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항하여 후진국 독일의 경제적 현실에 기초를 둔 국민경제학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그 경우 국민경제학의 과제는 독일이 도달한 경제발전단계를 究明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경제정책을 도출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국민경제학은 고전학과 경제학과 같은 일반이론이 아니라 경제발전 단계론이었으며 그 방법은 역사적 방법이였다. 즉, 한 나라의 경제발전단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독일 역사학과 경제학자들은 리스트, 루셔, 크니스, 힐데브란트(B. Hildebrand)들로 대표되는 전기 역사학과에서 뷔허(K. Bücher), 슈몰러(G. Schmoller)들로 대표되는 후기 역사학과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방법에 의해서 경제발전 단계를 구명하고 각각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경제발전 단계론을 주장하였다.

역사학과 경제학자들의 연구 속에서 경제사연구는 크게 진전되었다. 역사학과에 속한 독일학자들에 의해 독일 경제사 연구가 크게 진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경제사에 관한 중요한 연구들도 나왔다. 독일 역사학과 경제학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영국이라든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제사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역사학과의 방법론은 이론가와 역사가의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비판은 우선 한계 효용론자들. 특히 멩거에 의해서 제기되고 그에 대한 반비판은 슈몰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멩거는 “자연과학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학의 법칙을 다른 것과 분리해서 기술하기 위하여 경제학이 다루는 현실을 그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전형적 제요소로 분해하는 것”을 경제학자의 하나의 임무로 생각하였다. 이 ‘方法論爭’에서 멩거가 한 비

판의 요점은 역사학과는 ‘이론과학’과 ‘역사과학’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Menger(1884), Harte(1971, p. 293)]. 논쟁은 오히려 감정적 반발로 흘러, 멩거의 방법론 이외에는 새로운 이론을 낳지 못하였다. 역사학과는 그 후 막스 베버(Max Weber)의 논문 『社會科學 方法論』(1904년)으로 자기비판을 하였다.

한편 역사가들로부터 나온 비판은 경제발전 단계론이 역사사실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인식함으로써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실을 정당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그 동안 진행된 실증적 연구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비판의 선두에 선 뉘슈(Alfons Dopsch)는 『카로링時代의 經濟發展(전 2권)』(1912-191년) 및 『유럽文化發展의 經濟的·社會的 基礎(전 2권)』(1918-1920년) 등 1910년대에 출판된 그의 일련의 저서에서 경제발전 단계론에 따라 정립된 고전학설들을 실증적으로 철저히 비판하였다. 포스탄(M.M. Postan)은 힐데브란트의 자연경제 — 화폐경제 — 신용경제라는 발전단계론을 근본적으로 비판하였다. 그 속에서 역사학과 경제학자들이 정립한 일반화로서의 고전학설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역사학과 경제학은 무너지고 경제발전 단계론도 경제사 방법론으로서의 역할을 끝내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학과 경제학의 전개 속에서 경제사가 탄생하고 그 해체과정에서 경제사는 새로이 발전하였다. 그리고 역사학과가 사용한 용어들은 그 후의 경제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역사학과가 미친 것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경제사의 시야를 넓히고 후대에 미친 영향력으로 볼 때, 19세기 중엽에 나타난 사상으로서 중요한 것은 史的唯物論이었다. 해결학도였던 마르크스(Karl Marx)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인간은 그들이 영위하는 사회적 생산에서 필연적인, 그리고 그들의 의사로부터 독립한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이 생산관계의 총체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의 토대이며, 그 위에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서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회적 의지의 형태가 그에 대응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말하여 사회경제적 구조의 진보의 여러 단계로서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및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을 들 수 있다[Marx(1987, p. 263)].

일체의 법률, 국가, 정신 등 사회의 상부구조는 경제과정으로서의 하부구조에 의해서 규정되며, 후자의 변화에 따라 전자도 변화한다는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은 역사를 경제적으로 해석한 것이었다. 따라서 마르크스 경제학이 추구한 ‘經濟發展의 法則’은 바로 역

사발전의 법칙이다. 이제 경제사는 역사의 근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역사는 움직이는, 즉 동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자본주의도 선행한 모든 사회 경제제도와 같이 생성, 발전, 변화하는 역사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사 연구에 준 영향은 매우 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역사의 경제적 해석으로 경제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확대와 함께, 유폴론적 관점이라든가 마르크스 경제학의 여러 개념이 역사연구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를 숭배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자는 결코 아니었던 쾨바르트(W. Sombart)의 기념비적인 대작 『近代資本主義』(1902년, 개정판 1928년)는 마르크스가 제기한 문제를 보다 높은 학문적 수준에서 再論한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로스토브제프(M.J. Rostovzeff)의 대작 『로마帝國의 社會經濟史』(1926년)에서도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33년에 토오니는 “사회적 경제적 기초에 관한 한 참다운 경제학은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자들 아닌들 불가피하게 마르크스 後派이다” [Tawney(1933), Harte(1971, p. 93)]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하나는 20세기에 들어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역사연구가 하나의 유력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 연구를 일일이 열거할 여유는 없으나, 제2차 대전 직후의 ‘資本主義의 移行論爭’이라든가 그 후의 논의에서 마르크스주의 사학의 활발한 전개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사학은 혁명을 거친 소련의 경우를 차치하고라도 1930년대 이후 일본과 중국에서의 자본주의의 성격 내지 萌芽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미 이외 지역의 역사연구에서 매우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여 왔다. 유럽제국에서도 마르크스주의사학은 꾸준히 전개되어 있다.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의 絶對的 窮乏化 法則’이라든가 ‘階級鬭爭論’과 같은, 역사적 경험으로도 타당성이 부정되고 있는 이념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역사연구, 특히 자본주의 연구에 하나의 유용한 시각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社會經濟史는 앞에서 고찰한 두 가지 흐름의 영향을 받으며, 그리고 그것을 비판, 극복하는 과정에서 20세기 전반기에 크게 발전하였다. 사회경제사는 경제과정을 사회적, 사상적 요소를 포함한 인과관계 하에서 생성, 발전,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경제사를 통한 사회의 總體의 인식을 지향하였다. 사회경제사가들이 구명한 중심문제는 근대자본주의 공업문명 발달의 여러 단계와 그 특징, 그리고 그에 선행한 제조건이었다. 이 문제는 마르크스에 의해서 제기되고 20세기 초에는 쾨바르트에 의해서 새로이 보다 높은 학문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문제였다. 사회경제사의 학문적 배경은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

양하였다. 역사인식의 방법도 다양하였다.

영국의 경제사가들은 경제이론의 여러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통 경제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역사사실을 배제한 채 순수화, 추상화되고 있었다. 즉 1870년대의 한계혁명을 거친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단기적, 정태적 균형분석체제로 되어 제도등 주어진 경제여건 하에서의 인간의 경제행위의 구명을 지향하였다.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경제적 번영 속에서 경제학은 보수화하여 고전학파가 중요시한 경제발전 내지 성장의 문제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그 속에서도 경험주의적 전통이 강한 캠브리지학파의 경제학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마샬(A. Marshall)은 경제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저서 『産業과 貿易』(1919년)을 통하여 훌륭한 경제사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고도의 이론은 현실적, 역사적 연구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경제학이 수학적 가능성을 통해 그 자연과학적 법칙성을 탐구하면서, 그것이 다루는 대상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속에서의 인간' [Marshall(1890)]에서 '목적과(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체적 용도를 가진 희소한 수단 사이의 관계로서의 인간행동' [Robbins(1932, p. 15)]으로 결정적으로 전환하였다. 경제학은 인식대상이 상대적 희소성의 문제로 집약됨으로써, 현실의 복잡한 사회경제적 환경조건에서 벗어나 자연과학과 같이 보편 타당한 수학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어떠한 순수한 환경조건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클래팸의 표현을 빌면 경제학은 경험적·역사적 실체가 없는 '속빈 상자'(empty box)가 되었다[Clapham(1922)]. 경제학 인식에서 역사적 요소는 배제되고, 사회의 연구를 지향한 경제사에서는 경제학의 방법이 유용하게 이용되기 어려워졌다.

힉스는 경제이론이 제기하는 문제를 주어진 방법으로 연구한 성과가 응용 경제학이거나 경제사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연구방법은 동일하고 시간적 요소는 아무런 차이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들 두 가지 명칭의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며, 응용 경제학은 현대 세계의 경제사, 경제사는 낡은 시대의 응용 경제학으로 인식된다 [Hicks(1942, pp. 8-9)]. 경제학은 경제적 현실에 대한 일정한 가정하에서 자연과학적 법칙을 추구하며 精緻化하고, 경제사는 그 이론을 역사사실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일을 과제로 하는 '응용 경제학'으로 위치지워지게 된 것이다. 그 경우 경제사가는 이미 史家가 아니라 史的 지식을 갖춘 경제학자 내지 이론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는 단순한 자료수집가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한 이론은 복합적인 경제과정을 인식하고 사회발전의 종합사를 지향하는 사회경제사의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양자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경

제사는 경제학의 개념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서 실증을 중시하고 귀납적 방법으로 역사의 일반적 인식을 지향하였다.

사회 경제사가들이 다룬 중심주제는 자본주의 발달의 특질을 선행한 시기에서의 사회 경제의 전개와 함께 구명하는 데에 있었다. 독일에서는 벨로(George von Below)의 『領邦과 都市』(1900년)와 『經濟史의 諸問題』(1920), 스트리더(Jakob Strieder)의 『近代資本主義 起源論』(1904년), 『資本主義的 企業形態의 史的 研究』(1914년), 베버(M. Weber)의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 精神』(1904년), 『一般社會 經濟史』(1923년) 등의 연구가 나왔다. 벨로는 역사적 방법을 강조하고 사료 그 자체로부터의 인식을 중시하였다. 한편 베버는 물가치성, 이념형 및 이해적 방법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회과학 방법론을 토대로 경제사를 연구하여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자본주의정신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사를 유형적으로 인식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망투(Paul Mantoux)의 『18世紀 産業革命』(1906년), 세(Henri Sée)의 『近代資本主義의 起源』(1926년), 블록(M. Bloch)의 『프랑스 農村의 基本性格』(1931년), 『封建社會』(1939-1940년) 등이 출판되었다. 망투의 저작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산업혁명의 고전이며, 세는 풍부한 사료를 통해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을 비교사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블록은 사회를 총체로서 다루고 사회 여러 분야의 연구성과를 광범하게 받아들여 비교사적 방법으로 한 시대와 사회의 독자성을 인식하려 하였다. 벨기에에서는 페렌느(Henri Pirenne)가 『中世都市』(1929년), 『中世社會 經濟史』(1933년)를 통해서 중세도시의 기원을 구명하고 중세사회 경제사의 종합적 해석을 지향하였다.

영국에서의 사회경제사 연구는 19세기 후반기에 로저스(James Edwin Thorold Rodgers)의 통계적 연구(『英國農業 및 物價史』 전 7권, 1866-1902년), 비노그라도프(Paul Vinogradof), 메이트랜드(F.W. Maitland), 시봄(F. Seebohm) 등 법제사가들의 莊園制에 관한 연구, 역사학파의 영향을 받은 커닝검(William Cunningham)의 『英國 商工業의 發達』(1882년)과 애슐리(W.J. Ashley)의 『英國 經濟史 및 學說』(1888년), 그리고 웹부처(S. & B. Webb)의 『勞動組合史』(1894년) 등의 연구로 기초가 놓여지고, 20세기에 들어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언윈(George Unwin)의 선구적 연구 『16·7世紀의 産業組織』(1904년)과 『길드와 런던 캄파니』(1908년)에 이어, 토오니(R.H. Tawney)는 『16世紀의 農業問題』(1912년), 『宗教와 資本主義의 興隆』(1926년)으로 자본주의 발달의 선행기에서의 농민층 분해와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그리고 자본주의 흥룡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종교와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클래팸(J.H. Clapham)은 최초의 본격적인 수량적 연구인

『近代 英國經濟史』(1926년, 2-3권, 1938년)를 통하여 당시 통설이 되어온 토인비(A. Toynbee)-해몬드(J.L. and B. Hammond)의 산업혁명론을 비판하며 경제과정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혁명기 노동자의 생활수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포스탄(M.M. Postan)은 1930년대 이후 중세의 농업, 상업, 금융, 인구 등에 관한 획기적 논문들을 통하여 중세사회 경제사의 새로운 구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의 논문들은 1970년대 이후에 묶여져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애슈톤(T.S. Ashton)은 『産業革命에서의 鐵鋼産業』(1924년), 『18世紀 産業家』(1937년) 등으로 산업혁명 연구를 주도하였으며, 그의 『産業革命 1760-1830』(1948년)은 그 후의 산업혁명 연구의 길잡이가 되어 온 고전적 명저이다.

경제학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에도 경제사가들이 경제학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영국의 경제사가들은 많은 경우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한 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경제사와 경제이론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사가들은 유용한 이론적 및 통계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이 면에서 진일보하게 된 것은 제1차대전 이후 경제학 연구에서 점차 통계적 방법이 중요해지면서였다. 제1차대전 및 전후의 극심한 물가변동은 화폐가치의 변화의 원인과 그 사회적 결과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1920년대의 독점조직의 발달은 불완전 경쟁 내지 독점적 경쟁의 이론을 낳고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용한 분석도구를 제공하였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 속에서 '케인즈 혁명'과 함께 거시적 경제인식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 경제과정을 특징지어 온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원리가 제공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에 따라 경제이론 쪽에서 경제사에의 관심이 새로이 나타나고, 양자의 관계가 다시 밀접해졌다.

경제이론과 경제사가 서로 접근하면서 나타난 연구성과로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슈페터(J.A. Schumpeter)의 『景氣循環論』(1939년)일 것이다. 그는 이 연구에서 경기순환에 관한 풍부한 역사적, 통계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의 기초를 놓았다. 또한 그의 『經濟發展의 理論』(1934년)은 전통적으로 경제학이 경제성장 내지 발전의 기본요소로 자본, 노동 및 자원을 중시하는 경향 속에서 경제발전이라는 장기적, 역사적 문제를 기업가의 '혁신' 활동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제2차대전 후의 콜(A.H. Cole)에 의해 주도된 企業家史(entrepreneurial history) 발달의 기초를 놓았다. 한편 영국에서의 수량적, 통계적 역사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로저스-클래팜에서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의 『英國의 物價 및 賃金』(1939년)으로 이어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독일에서는 호프만(Walter G. Hoffmann)이 『工業化的 諸段階와 諸類型』(1931년)에서 공

업화과정을 통계적,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2차대전 후에 크게 진전되는 수량적 분석의 선구가 되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헤셔(Eli F. Heckscher)의 『重商主義』 전 2권(1931년)은 경제학과 정치학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제정책사 및 사회경제사상사 분야의 포괄적 연구업적이다.

3

경제사는 제2차대전 후에 새로이 발전하였다. 경제사의 문제의식과 대상이 달라지고 새로운 연구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것은 경제학에서의 새로운 문제의식과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 전후 경제학에서 제기된 새로운 문제는 선진공업국에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실현과 식민지적 지배에서 해방된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내지 공업화의 추진이라는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경제성장이론 내지 발전경제학이 새로이 전개된 것이다.

경제성장이라든가 발전이라는 문제는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 경제학의 문제였고, 역사학과의 국민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 그리고 슈페터 경제학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같은 문제의식은 물론 사회경제사가들에게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경제학 및 경제사의 문제의식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발전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 전후 제기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선진공업화 경제가 1930년대와 같은 경제적 파국을 회피하면서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고 저개발경제가 경제개발을 이룩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성격의 것이었다.

경제성장이론은 문제를 장기적·동태적으로 인식하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추계하는 수량적·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에 대응해서 경제사는 이론과 수량적·통계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역사와 이론은 새로이 '接近' 내지 '結合'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은 순수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비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제현상이다. 초기의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자본, 노동, 자원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였다. 경제발전의 동인으로서 혁신적 기업가 활동을 강조한 슈페터의 발전이론은 주류경제학에서는 주목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대전 후 경제적 조건은 동일하여도 성장실적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는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경제성장 내지 발전에는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비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특히 경제개발을 통하여 근대적 성장의 궤도에 진입하려는 저개발

발국의 경우,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그 외의 '殘餘'(residual)로서의 기술변화, 규모의 경제, 조직, 정부, 기업가 활동 등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만큼 경제성장이론의 시야는 넓어졌다. 그에 대응해서 경제사의 인식범위도 넓어졌다. 물론 전통적 사회경제사에서도 다루어진 문제는 광범하고 다양하였으며, 많은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 연구는 개별적, 전문적이었으며, 공통적으로 의거할 기준 내지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상호연결될 수가 없었다. 이에 비해서 경제성장이론에 기초한 경제사는 다양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상호관련 하에서 포괄적,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량적** 개념이다. 경제성장 내지 변화라고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은 최종적으로는 일련의 집계와 성장률로 표현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민소득, 생산, 무역, 인구, 노동력, 자본형성, 수요, 국제수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계측이 적극 추진되었다.

경제사에서의 수량적, 통계적 분석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사의 기본방법으로 광범하게 행해진 것은 제2차대전 후의 일이었다. 1930년대부터 국민소득회계체계에 의해 미국의 국민소득을 추계해 온 크즈넷(S. Kuznets)은 1950년대 후반부터는 그것을 유럽 여러 국가에 확대하고, 그것을 통하여 구미제국의 경제성장패턴을 비교하였다. 그의 방대한 연구성과는 『近代經濟成長 成長率, 構造, 擴散』(1966년)으로 출판되었다. 뒤이어 그는 『諸國民의 經濟成長』(1971년)에서 선진 14개국과 저개발 7개국의 GNP와 그 부문별 구성을 추계, 분석하였다. 영국에서 미첼(B.R. Mitchell)은 필리스 딘(Phyllis Deane)과 협력하여 경제성장에 관한 장기시계열 통계자료집, 『英國歷史統計摘要』(1962년)를 출판하였다. 주로 19세기 이후의 인구, 노동력, 산업생산, 국제무역, 임금 및 생활수준, 국민소득, 재정금융, 물가 등에 관한 원자료를 정리, 분석, 가공하여 작성된 이 책은 영국경제사의 수량적 인식을 위한 기초자료집으로 이용되었다. 장기에 걸친 국민소득추계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등 선진공업국에서는 크게 진전되고, 그 성과는 경제사의 수량적 인식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수량적 방법을 이용한 경제성장의 역사적 분석은 새로이 전개되었다. 그 최초의 성과는 영국에서는 필리스 딘과 콜(W.A. Cole)의 『英國 經濟成長 1688-1959年. 趨勢와 構造』(1926년)였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가공한 수량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 노동력, 국민생산 구조변화, 주요산업생산, 국민소득의 요소구성, 자본형성의 장기추세를

분석하고 경제성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였다. 그후 경제사의 수량적 연구는 특히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지배적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필리스 딘과 콜의 추계를 비판하여 자신의 추계로 산업혁명기의 성장율을 새로이 제시한 크래프트(N.F.R. Crafts)의 『英國産業革命期の 經濟成長』(1985년)은 그동안의 연구의 진전을 알려주는 성과이다.

경제성장의 시각과 수량적 방법에 의한 경제사 연구는 특히 산업혁명 내지 공업화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연구를 자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학자는 로스토우(W.W. Rostow)였다. 『經濟成長의 過程』(1953년)에 이어 출판된 그의 『經濟成長의 諸段階』(1960년)는 '反공산당 선언'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 경제사 방법론에 반대하여 경제성장론에 의거한 경제사의 종합적 인식을 시도한 것으로서 큰 주목을 끌었다. 주지하다시피 로스토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離陸(take-off)의 단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빈곤의 악순환' 속에 있는 前공업화경제가 지속적 성장 내지 근대적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 공업화 경제로 전환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제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산업혁명'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며, 경제성장 내지 발전론에서는 '빅 푸쉬' (big push), '돌파' (break-through), '대질주' (great spurt), '始動' (getting started), '경제적 劃期' (economic epoch)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개념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들 용어는 모두가 어떠한 강력한 힘 내지 충격이 집중적으로 주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전통사회에서 근대적 공업화사회로의 전환에는 어떠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의 국면'이라는 관념은 그 후의 연구의 진전에 의해서 부정되고 '漸進的' 성장 내지 발전이라는 관념이 일반화되고 있다.

경제성장이론의 개념과 방법을 도입하여 산업혁명의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성과는 필리스 딘의 『最初의 産業革命』(1965년)이었다. 그 속에서 저자는 산업혁명을 산업성장과 노동력 및 자본 등 경제적 요소들과 함께 기술혁신과 정부정책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로스토우도 『近代經濟의 起源』(1975년)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의 계기로서 정치근대화, 상업혁명, 그리고 특히 과학혁명, 기술혁신, 근대적 기업가의 출현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경제사 연구는 산업혁명 내지 공업화에 중점을 두면서 인구, 산업, 자본, 노동, 기술, 기업가 활동, 정부, 생활수준, 국제무역 등 광범한 문제들을 대상으로 진전되었다. 이들 주제와 관련된 그 동안의 방대한 연구성과를 여기서 일일이 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金宗炫(1981)] 참조].

인식범위의 확대는 역사의 총체적 인식을 지향한 전통적 사회경제사에서 고유한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질적 방법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제도적 및 질적 변화를 중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경제성장이론과 수량적 방법을 도입한 새로운 경제사는 인식범위가 넓어졌으면서도 이론의 틀 속에서 수량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제적 변수의 분석에 치중하고 그 외의 사회적 변수는 분석대상에서 일단 배제하였다. 이제 경제사는 사회적 측면의 분석을 제외한 채 '순수화' 하고, 그만큼 대상범위는 축소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뒤에서 보는 '新經濟史'의 전개에 따라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경제사는 경제사와 사회사로 분리되었다. 그것은 학문분화의 한 측면이었다. 그와 함께 총체적으로 인식되던 문제들이 분화된 학문체계에서 분석되었다. 매다이아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경제발전은 경제학자에만 맡겨지기에 너무나 중요하였다' [Mathias(1970), Harte(1971, p. 377)]. 따라서 경제사는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사회과학과의 학문적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사실 경제사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산업혁명의 기업가가 청교도에서 다수 배출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종래의 敎理 중심의 논의와는 달리 심리학적 논의가 새로이 전개되었다. 헤겐(E.E. Hagen)은 『社會變化의 理論·經濟成長은 어떻게 시작되는가』(1962년)에서 '소수집단' 내지 '중속집단'이 혁신적 퍼서날리티를 갖게 되는 심리학적 동인을 분석하고, 맥클랜드(D.C. McClelland)는 『成就社會』(1961년)에서 특정한 인간동기로서의 성취욕구가 기업가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산업혁명의 지적 조건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학자 헨스(N. Hans)의 『18世紀 敎育에서의 새로운 趨勢』(1951년)가 중요하였다. 이외에도 산업혁명, 공업화와 관련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에 관한 연구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순수 경제사'는 역사의 종합적 인식을 위해서 이들 연구성과를 광범하게 흡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이론을 적용하고 수량적, 통계적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전통적 방법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經濟史의 革命' [North(1966, p. v)]을 이룩한 본래의 의미에서의 '新經濟史' (New Economic History)는 미국에서 전개된 '計量經濟史' (econometric history, cliometrics)였다.

新經濟史의 방법론에 의한 역사적 연구는 1960년대에 전개되었다. 그의 당면한 연구목적은 전통적으로 미국경제사의 통설로 되어 온 남북전쟁 전의 남부 노예제의 수익성이 낮았다는 것, 미국 경제발전에서 철도의 역할이 컸다는 것, 미국공업화에 있어서 남북전쟁

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 등의 여러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이 해석하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 신경제사의 중요한 연구성과로서 1960년대에 콘라드·메이어(Alfred A. Conrad and John R. Meyer)의 『奴隸制의 經濟學과 기타 計量經濟史 研究』(1964년) 포겔(Robert W. Fogel)의 『鐵道와 美國經濟成長』(1964년), 테민(Peter Temin)의 『19世紀 美國의 鐵鋼工業』(1964년), 피슬로(Albert Fislow)의 『美國 鐵道와 南北戰爭 前의 經濟的 轉換』(1965년) 등이 거의 같은 시기를 전후하여 출판되었다. 그리고 1970년에 들어서는 포겔·앵거맨(Fogel and Stanley L. Engerman) 共編으로 미국경제사에 관한 신경제사의 연구 성과를 모은 『美國經濟史의 再解析』(1971년), 데이비스·이스털린·파커(Lance E. Davis, R.A. Easterlin, W.N. Parker, et al.) 등의 『美國經濟의 成長』(1972년), 포겔·앵거맨의 『苦難의 時代』(1974년) 등이 뒤이어 출판되었다.

포겔은 新經濟史는 측정 및 그것과 이론간의 밀접한 관련을 강조하는데 그 방법론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제발전에 관한 모든 설명을 유효한 형태의 '假說-演繹의 모델' 속에서 구조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Fogel(1966)]. 또한 투마(E.H. Tuma)는 신경제사의 방법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그것은 (1) 분석에 경제이론을 광범하게 이용하는 것, (2) 계량적 및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3) 과학적 방법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 (4) 연구와 관련한 모델, 가정 및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 (5) 제가설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반사실적 가설접근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Tuma(1971, p. 6)]. 요컨대 신경제사 내지 계량경제사의 방법론의 핵심은 경제사에 경제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제시되어 온 논제들을 엄격하고 명확한 명제 내지 가설로 재구성하고 수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 '反사실적 假說'이 설정되어 역사사실과 비교되며, 수량적 데이터가 결손되어 있는 경우 질적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추계가 이루어졌다.

신경제사는 초기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것이 기성학설에 대한 과격한 공격과 성급한 우상타파를 통해서 '경제사의 혁명'을 이루려는 데 대해서 전통사가의 반감도 있었다. 레드리히는 '반사실적 가설'은 허구(figment)이며 그것에 기초하는 추론은 역사가 아니라 '疑似 역사' 내지 '역사모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Redlich(1965)] 한편 하바쿠크는 현실과 일치되지 않은 가설에 기초한 신경제사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Habakkuk(1971)]. 이러한 비판을 거치면서도 신경제사는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경제사학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의 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신경제사의 방법론은 경제이론을 광범하게 적용하여 논제를 명확한 명제 내지 가설로 재구성하고 고도의 수학적·계량적 방법으로 가공한 수량적 데이터로 검증함으로써 경제사를 공통의 기반 위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이론의 적용은 그 이론이 경제사에서 다루는 문제를 자신의 체계 속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여유를 갖지 못할 경우 경제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靜態的 均衡理論에 기초한 계량경제사의 방법론적 난점은 장기간에 걸친 역사발전의 동태적 분석에서 볼 수 있다. 즉, 일정한 시대의 특정한 문제를 엄밀한 이론적 가설을 통해 수량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신경제사는 역사의 動學을 설명하는 데에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발전의 이론을 정립하려는 신경제사의 성과로서 출판된 노드와 토마스(Douglas C. North and Robert P. Thomas)의 『西洋 世界の 勃興』(1973년)은 그러한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들은 근대적 경제성장이 서유럽에 고유한 역사현상이었다는 전제하에 그 원인을 효율적 경제제도의 존재에서 찾았다. 그들은 제도에는 회사조직이라든가 노동조합 등 '2次的 制度'와 재산권, 계약권 등을 지배하는 왕정이나 의회 등 '資本的 制度'가 있어 전자의 변화가 누적되면 후자의 변화가 야기된다고 보았다. 그 경우 제도변화는 그에 따른 이익이 비용을 초과할 때에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거기에는 '경제인'(homo economicus) 내지 이윤극대화원리가 기본적으로 가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유형은 시대에 따라 다르며, 자본주의 인간유형으로서의 '경제인'을 근대 이전의 시대에서도 상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제도적 변화의 이론도 역사발전의 이론으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신경제사는 그동안 '혁명적' 충격을 주면서 미국경제사와 영국산업혁명연구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적용범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경제사의 방법이 쓸모없는 시대적 유물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나라의 학문적 전통이라든가 史家의 성향, 사료의 존재형태, 역사적 조건에 따라 마르크스주의 경제사나 사회경제사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문제에 따라서는 영미국가에서도 사회경제사적 접근은 중요시되고 있다.

신경제사는 특정 문제를 엄밀한 가설로 재구성하고 그것을 고도의 계량적 방법으로 가

공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경제사의 '과학성'을 높였다. 전통적 경제사가 부분적으로 경제이론과 수량적·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논제에 관한 명확한 정의 없이 그리고 현존자료나 경험적 사실에 집착하여 질적 분석에 의존함으로써 상당히 광범하고 막연한 결론을 낳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신경제사의 방법은 '革新的'이었다. 그러나 한편 신경제사의 방법은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 밖에 있든가 수량화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사의 분석범위를 축소시켰다. 따라서 이론의 적용이 어렵거나 수량적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는 시대 및 국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반사실적 가설' 접근방법은 경험적 사실이 아닌 허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통한 역사인식이 실제와 괴리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사는 경제현상의 발생 및 성장·발전·변화의 과정과 그 원인을 구명하는 학문이다. 경제 성장이나 발전은 다양한 경제적·비경제적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진행되는 사회과정이다. 그것은 관심분야가 협소한 경제학 이론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량적 분석만으로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광범한 경제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제사를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총체적 인식을 위한 사회과학으로 보고 비록 다소 막연하지만 포괄적으로 설정된 문제를 방대한 경험적 사료에 기초해 날카로운 인식, 직감,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인식에 도달하는 전통적 경제사의 문제의식과 방법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하바쿠크는 신경제사의 방법과의 대비에서 전통적 경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광범한 역사읽기, 다양한 환경속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에 관한 장기간의 실제적 경험, 그리고 특정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부지식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에 기초한 좋은 판단은 많은 역사문제를 위하여 엄격하게 명시된 시스템으로서의 분석보다도 사건의 보다 정확한 해석을 낳을런지 모른다. [신경제사]의 분석은 특정한 장소에 강력한 빛을 비출런지는 모르나 주변경관을 왜곡하거나 어둠 속에 남겨둘런지 모른다. 정보의 기반 위에서의 판단은 비록 덜 강력하지만, 인간활동의 전영역에 보다 균일하고 믿을 수 있는 빛을 발산할 것이다(Habakkuk(1971, p. 318)).

하바쿠크는 신경제사와 전통적 경제사의 방법론은 양립될 수 없을 것이므로 경제사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론의 병존은 학문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일일 것이다. 신경제사와 전통경제사는 어느 한쪽에 의해서 다른 한쪽이 대체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않으며, 보다 완전한 경제사에 접근하기 위하여

서로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사는 일반적 발전 경향이나 법칙의 인식을 추구하여 왔다. 경제사가 다루는 문제가 개인적,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집합적인 것이므로, 그러한 문제를 인식대상으로 하는 경제사가 개별성, 특수성보다 일반성, 보편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론적 인식의 기준이 서구사회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근대 자본주의 발전이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그에 대응하여 경제사도 서구제국에서 발달했던 역사적, 학문적 배경에서 유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사가들은 근대 자본주의 발전이 서구에 고유한 현상으로 보아왔다. 그리고 서구사회는 역사적으로 발전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 문명권에 속한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진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근대적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은 기본적으로는 영국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마르크스학파의 발전 모델, 사회경제사의 일반론적 인식, 로스토우의 성장 단계론, 노오드와 토마스의 제도변화이론 등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서구 중심의 이론이 서구사회와는 다른 역사과정을 걸어 온 비서구세계, 즉 아시아와 아랍세계들의 경제발전 모델로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있다. 사실 서구 중심의 이론은 비서구제국의 경제사 인식에도 적용되어 왔다. 그 배경에는 선진국 모델이 후진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고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산업적으로 보다 발전한 나라만이 덜 발전한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장래의 모습을 보여 준다” [Marx(1954, vol. 1, p. 19)]고 언명하고 있다. 그리고 폴라드(S. Pollard)는 “유럽의 공업화는 영국모델에 따라 수행되었다. 즉, 유럽대륙에 관한 한 공업화는 순순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모방하는 과정이었다” [Pollard(1981, p. 9)]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사고에 따라 서구의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비서구제국의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여러 문제, 예를 들어 선행 조건의 형성이나 자본주의 성격 등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 동안의 아시아제국, 특히 일본, 중국 및 한국에서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나 자본주의 맹아 등을 둘러싼 논쟁은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사고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맹아와 관련해서는 부농층이나 매뉴팩처어의 존재여부가 중요시되고 그것을 검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동일한 인식선상에서 아시아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일찍 근대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역사적 조건으로 서구와 유사한 봉건제도나 선행 조건의 내재적 전개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비서구사회도 서구 모델의 조건을 갖추면서 결국에는 서구사회와 같은 경로로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서구중심의 발전 모델에 대한 반성은 제2차대전 후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 배경으로 우리는 첫째로 발전도상국의 경제개발 문제가 현실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발전이론이 여러 가지 발전 모델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게 되었다는 것, 둘째로 그 동안 한국, 중국, 대만 등 저개발국이 선진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모델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것, 셋째로 비서구세계인 일본이 두드러진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근대적 발전이 서구사회에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비서구사회에서도 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론적, 현실적 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발전은 서구 모델에 따라 單線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조건과 그에 대한 경제주체의 대응양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즉 선진국이 걸어온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複線적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경제발전의 일반적 경향 내지 법칙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비서구세계의 역사과정도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비교사적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집단적이고 집합적인 현상을 다루는 경제사는 본질에 있어서 일반성을 추구하지만, 그들 현상은 실제에는 한 국가나 지역의 테두리 속에서 각각의 시대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카메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Cameron(1993, pp. 10-11)] 경제발전의 작용하는 요인들의 존재형태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며, 또한 같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그들 요소의 작용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나라에 따른 발전 패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거셴크론의 後進國發展 모델은 이러한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Gerschenkron(1966, 1968), 金宗炫(1966) 참조].

비교사적 방법은 과거에도 여러 사가들에 의해서 이용되었다. 막스 베버는 '理念型'이라는 모델을 이용하여 서구세계와 비서구세계의 역사를 비교 고찰하였으며, 토오니는 서구(영국)농업과 중국농업을 비교하였고, 마르크스 블록도 그리고 새로운 경제사도 비교사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비교의 기준은 서구적 모델이며, 비서구사회의 발전 모델을 모색한 것은 아니다.

비서구세계에는 서구 자본주의 제국의 식민지적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많다.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에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식민지 시기를 포함한 선행 시기의 역사적 조건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는

며, 사실 그러한 노력은 자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에 따른 개별성의 인식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편협한 내쇼널리즘에 호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경제과정은 국가나 민족 단위의 폐쇄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아니라 국가간, 민족간 밀접한 상호접촉을 통해서 전개된다. 그 속에서 경제문명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는 그 자체의 개성을 가지면서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상당한 정도로 동질화되면서 전개된다. 비교사적 방법은 개별성을 통해 일반성을 인식하는 방법인 것이다.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156-072 서울시 동작구 흑석2동 한강현대APT 108-1303

전화 (02)813-1106

參 考 文 獻

- 姜命圭(1972)·“New Economic History의 方法論에 관한 研究.” 『經濟論集』, **11**, 13
- 金宗炫(1996) “총설-공업화의 비교사적 방법”, 『工業化的 諸類型』(金宗炫 編著), 經文社.
- _____ (1995-1996)·「韓國における經濟史研究の最近の動向」, (日本) 『社會經濟史學』, **62**, 5.
- _____ (1981)·“西洋經濟史”, 『經濟學研究入門』(서울大 經濟學教授 15人 共同執筆), 第13章, 比峰出版社.
- Aitken, H.G.J. (1960): “On the Present State of Economic Histor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6**.
- Andreano, Ralph L. (1970): *The New Economic History: Recent Papers on Methodology*, New York.
- Ashton, T.S. (1946): “The Relation of Economic History to Economic Theory,” *Economica*, New Ser. Vol. 13.
- Cameron, Rondo (1993): *A Concise Economic History of the World: From Paleolithic Times to the Present*,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Carr, E.H. (1961): *What is History?* London.

- Chambers, J.D. (1960): *The Place of Economic History in Historical Studies*, Nathingham.
- Clapham, J. (1928): "The Study of Economic History," an Inaugural Lecture, Cambridge.
- _____ (1922): "Of Empty Economic Boxes," *Economic Journal*, xxxii.
- Fogel, Robert W. (1966): "New Economic History: Its Findings and Methods,"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xix**, 3.
- Gerschenkron, Alexander (1966):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Harvard Univerity Press.
- _____ (1968): *Continuity in History and Other Essays*,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s, N.S.B. (1927): "The Rise and Development of Economic History," *Economic History Review*, I, January.
- Habakkuk, John (1971): "Economic History and Economic Theory," *Daedalus*, Vol. 100.
- Hancock, W.K. (1946): "Economic History at Oxford," an Inaugural Lecture, Oxford.
- Harte, H.B. (ed.) (1971): *The Study of Economic History*, London.
- Hicks, J.R. (1942): *The Social Framework*, Oxford.
- Marshall, A.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 Marx, Karl (1954): *Capital: A Critical Analysis of Capitalist Production*. Vol. 1, Moscow.
- _____ (1987):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nomy*, Moscow.
- Mathias, Peter (1970): "Living with the Neighbours: The Role of Economic History," an Inaugural Lecture, Oxford.
- Menger, Carl (1884): *Die Irrtümer des Historismus in der deutschen Nationalökonomie*, Vienna.
- North, Douglass C. (1966): *Growth and Welfare in the American Past: A New Economic History*, New Jersey.
- North, Douglass C., and Robert Paul Thomas (1973):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lard, Sidney (1965): "Economic History — A Science of Society?," *Past & Present*, **30**.
- _____ (1981): *Peaceful Conquest: The Industrialization of Europe 1760-1870*, Oxford University Press.
- Postan, M.M. (1939): "The Historical Method in Social Science," an Inaugural Lecture, Cambridge.

Redlich, Fritz (1965): "New and Traditional Approaches to Economic History and their Interdependenc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xxv**, **4**.

Robertson, Ross M. (1973): *History of the American Economy*, 3rd ed., New York.

Robbins, L. (1933):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London.

Rostow, W.W. (1960):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57): "Interrelation of Theory and Economic Histo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17**.

Supple, B.E. (1960): "Economic History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0**.

Tawney, R.H. (1933): "The Study of Economic History," *Economica*, **39**.

Tuma, Elias H. (1971): *Economic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s: Problem of Method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_____ (1971): *European Economic History: Tenth Century to the Present: Theory and History of Economic Change*, New York and London.